

# 《詩經》 텍스트 분석의 교육적 접근

김수경\*

## <목 차>

1. 서론
2. 《詩》無達詁의 주제읽기
3. 시적 표현의 감성체험
4. 원전과 번역 사이의 공간인식
5. 결론

## 1. 서론

《詩經》은 中國 先秦時期부터 전통 봉건 시대 貴族子弟의 교육과정에 포함된 주요 교과 가운데 하나이다. 공자의 언급을 위시한 先秦文獻의 관련기록이나 《예기》에 등장하는 ‘《詩》教’ 등의 용어를 통해, 우리는 이미 《詩經》 텍스트가 전통시대 교육과정의 학습교과목의 하나로서 지식수용과 덕성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禮樂活動 및 賦《詩》言志의 外交辭令 활동 내지 論說의 依據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詩經》 텍스트에 대한 교육은 더 이상 전통시대만큼 음악적·外交辭令的·윤리교육적 요소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지 않는 대신, 주로 문학 감상이나 경전교육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현대의 《詩經》 연구 범위가 전통시대에서 다루어지지 않던 문화인류학·심

\*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Post-doc

리학·고고학·해석학 등의 범주로 확대·심화되는 점은, 현대 《詩經》 텍스트에 대한 교육 영역이 다양화될 수 있다는 데 충분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보편적인 방식인, 훈고와 의미해석 중심의 문학 감상이나 경전교육 방안 외에도, 한국인 학습자가 다른 여러 각도에서 《詩經》 텍스트를 접근하고 학습할 수 있음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중국고전시가 전반에 걸친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며<sup>1)</sup> 《詩經》 텍스트에 대한 교육적 접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는 《詩經》 텍스트가 유가 경전으로서의 성격과 시가문학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점, 대학 등 교육 기관에서 《詩經》 텍스트만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는 경우가 드문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중국에서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수록된 《詩經》 텍스트의 개별 시편, 문헌 특징 등에 대한 교수학습 설계 관련 논문들이 단편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 학습자의 학습목적에 적합하고 흥미도와 학습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됨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詩》無達詁의 주제읽기, 시적표현의 감성체험, 원전과 번역 사이의 공간인식이라는 세 방면에서 《詩經》 텍스트를 접근할 경우 한국인 학습자가 보다 다채롭게 《詩經》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 관련 연구로 류성준, <중국 고전시가의 향후 연구모색과 그 교육>(《외국문학연구》 11,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2, 155~191쪽), 주기평, <한국 대학에서의 중국고전시가 교육방법>(《中國文學》 72, 한국중국어문학회, 2012, 201~224쪽) 등이 있다.

## 2. 《詩》無達詁의 주제읽기

董仲舒가 언급한 ‘《詩》無達詁’는 《詩經》 해석입장에서 비롯한 중국 전통 시학의 주요 명제 가운데 하나로서, 《詩經》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과연 ‘정해진 본뜻’이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회의론을 제기한다.<sup>2)</sup> 《詩經》 詩篇의 주제와 의미에 대해 역대 주석가들의 관점이 서로 다르거나 때로는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詩》無達詁’는 바로 이러한 현상을 가장 명료하게 설명해주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詩經》의 역사적 편찬 과정, 해석 과정을 살펴볼 때, 詩歌集으로의 편집이 음악연주를 위한 악보 편찬 작업과 오버랩되면서 創作者의 창작의도, 編纂者의 편찬의도, 編曲者·演奏家의 해석의도 등이 중첩되고, 先秦시기 정치가나 논설가들에게 吟誦되는 과정에서 賦《詩》者와 引《詩》者의 해석입장이 더해지면서, 《詩經》 텍스트의 이해는 복잡다단한 양상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양상 속에 내재된 문화적 배경에 대해 납득할만한 이해 과정이 생략될 경우, 사전 학습 단계에서 이미 漢字·詩語·漢詩의 형식적 특징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학습자라 하더라도 詩篇의 의미를 선택하는 과정에 이르러 새로운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결국 《詩經》 텍스트의 의미가 난해하다거나 혹

2) ‘《詩》無達詁’의 개념과 관련 관점에 대해서는 이동향, <중국고전시론중의 감상론>(《중국어문논총》 제29집,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05), 294~295쪽 참조. 상기 논문의 297쪽에서 “詩無達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詩歌言語의 부정확성에 있고, 詩歌의 심미특징인 ‘言外之意’에 있다.”고 서술하고 “부정확한 言語와 意象을 통해 작품의 眞意와 意境을 感悟하는 것이 감상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상기 서술은 詩歌言語가 본질적으로 ‘부정확성’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詩意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부정확성’을 ‘극복’하고 ‘眞意’를 ‘추구’하고자하는 가치판단인식이 전제된다는 느낌을 배제하기 어렵다. 만약 詩無達詁 발생의 주요 원인을 ‘시가언어의 부정확성’에 둔다면, 독자의 “서로 다른 기호·사상·감정·생활체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詩無達詁’의 측면이 ‘부정확성’이라는 가치판단과 상치되면서 최종적으로는 그 의의가 상쇄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논의하는 詩無達詁는 독자의 서로 다른 해석관점을 인정하고 독려하는 각도에서 서술되는 까닭에, 상기 논문의 서술과 부분적으로 입장을 달리함을 밝혀둔다.

은 해석이 너무 많아 결국 해석이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본장에서는 《詩經》 해석상의 《詩》無達詁의 특질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속의 다의적 해석양상을 유형화시키고 그 문화배경을 제시해주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해석의 다양성의 발생 맥락을 인식하고 나아가 open mind적인 해석을 시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詩經》 텍스트 해석의 접근방향을 이원론적으로 분류한다면, 텍스트 창작자의 창작배경과 사회배경을 강조하는 '知人論世'식의 전통적 접근 방식, 그리고 詩歌 意象의 多義性 및 감상자의 隨意的인 感受性을 강조하는 현대식 접근 방식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은 텍스트의 이해과정에서 해석자의 주관 인식이 시종 개입하는 까닭에 완전히 분리될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중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텍스트의 이해는 결국 이 두 중점의 균형과 융합의 과정에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텍스트를 이해하려는 독자는 텍스트 언어와 형식에 담긴 '전통과 해석자의 '지평'이 만나는 '지평융합'임을 강조했던 가다머의 관점과 같이<sup>3)</sup>, 讀者의 前理解 (Vorverstaendnis)와 작품 언어에서 표현하는 내용이 서로 융합되는 '以意逆志'의 과정<sup>4)</sup>에 대해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본장에서는 《詩經》 <關雎><sup>5)</sup>편에 대한 전통과 현대의 관점, 즉 美詩, 刺詩, 또는 꿈의 상징 시 등으로 파악하는 관점들을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關

3) 가다머의 관점에 대한 서술은 고정희, 《고전시가교육의 탐구》(서울: 소명출판, 2013) 26쪽에서 재인용.

4) '知人論世'와 '以意逆志'에 대한 분석은 董洪利, 《孟子研究》(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7), 106~118쪽 참조. '以意逆志'에 대해서는, 董洪利의 관점을 따라, '意'는 '作者의 意'나 '讀者의 意' 등으로 분별하지 않고 '志'는 '작품언어가 나타내고 있는 내용'으로 보아, '以意逆志' 전체를 讀者의 前理解 (Vorverstaendnis)와 작품 언어에서 표현하는 내용이 서로 융합되는 과정(위의 책, 117쪽)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5) 《詩經·周南·關雎》: 제①장: "關關雎鳩, 在河之洲。窈窕淑女, 君子好逑。"; 제②장: "參差荇菜, 左右流之。窈窕淑女, 寤寐求之。求之不得, 寤寐思服。悠哉悠哉, 輾轉反側。"; 제③장: "參差荇菜, 左右采之。窈窕淑女, 琴瑟友之。參差荇菜, 左右芼之。窈窕淑女, 鍾鼓樂之。" <關雎>편의 篇章에 대해서는 《毛詩鄭箋》에서 '五章 章四句'으로 보는 견해와 '三章, 其一章四句, 二章八句'로 보는 견해 두 가지를 제시하였으나(臺灣: 新興書局, 1979, 2쪽), 朱熹 《詩集傳》(上海: 上海古籍出版社·安徽教育出版社, 2002, 403쪽)에서 후자의 견해를 채택한 이래 주요 편찬물들이 주희의 체제를 따르게 되었다.

雎>편의 역사적 해석 공간 및 현재의 해석 공간들이, 오늘날 《詩經》 학습자의 사고와 인식을 다양화하는 훈련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2.1 과거 해석의 이해와 접근 읽기

<關雎>편에 담긴 혼인·연애관은 중국 및 동아시아문화권에 오랜 기간 동안 깊은 영향을 끼쳤으며 詩篇에 사용된 적잖은 어휘와 구절들이 현대어로 전승되고 있다. <關雎>편의 ‘窈窕淑女’·‘輾轉反側’ 등이 한국어의 일상 어휘로 활용되는 점도 이러한 일면을 보여준다. 한국의 어린이용 《詩經》選集이나 고등학교 중국어 독해 교재 등에 <關雎>편이 수록된 점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詩經》의 詩篇으로서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지닌 시편이라는 점을 左證한다.

<關雎>편이 지닌 상징성은 옛사람들의 <關雎>편에 대한 이해의 반영이다. 그러나 과거의 <關雎>편에 대한 이해가 단일한 것은 아니었다. 詩篇을 바라보는 해석자의 관점이 다양하다는, 어찌 보면 진부하다 할 만한 서술은, 해석자의 관점에 문화적 內涵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다 선명하게 구체화될 수 있다.

전통 《詩經》학의 범주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 관점은, 바로 <毛詩序>에서 <關雎>이 后妃의 德<sup>6)</sup>이라 한 것이다. 이 해석 구도에서 <關雎>편 전체는 君子가 后妃를 구하는 모습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그 후 문화적으로 이 해석 구도가 견지되면서 사람들은 점차 이 시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과연 구체적으로 누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라는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詩經》의 첫머리이자 <周南>의 시작으로서의 전범을 발양하고

6) 毛公序, 鄭玄箋, 《毛詩鄭箋》, 相臺岳氏本校正 影印本, 臺灣: 新興書局, 1979, 1쪽: “<關雎>, 后妃之德也.”

이상사회에서의 통치자의 모델을 구현하고자 하는 인식이 적극적으로 개입되면서 詩篇의 君子와 后妃를 文王과 그의 아내 太姒로 代置하는 견해로까지 구체 대상화되기에 이르렀다 할 수 있다.<sup>7)</sup> 이 해석 관점은 《詩經》의 冒頭에 <關雎>편이 위치한 데 대한 상징 의의를 부여하고 儒家 《詩》學 체계 안에서 그 지위를 확고히 하는 데 매우 합리적인 관점이라 할 수 있다.

傳統 봉건사회에서의 <關雎>편은 감상을 위한 작품만이 아니라 의미전달을 위한 담화의 도구 역할을 하였는데, 담화 속에서는 詩句의 文脈義와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가령 毛詩계열과는 반대로 <關雎>을 諷刺詩로 읽는 三家詩의 경우는, 바로 發話者 또는 誦詩者가 담화 속에서 <關雎>편을 통해 諷刺의 의미를 담아내고자 함에 해당한다.<sup>8)</sup> 三家詩의 관점은 毛詩가 등장한 이래 점차 영향력을 잃다가 失傳되어 이제는 그 全貌을 알 수 없게 되었지만 각 문헌속의 편린을 통해 그 일부를 살필 수 있다. 魯詩의 관점을 취한 司馬遷은 “周나라의 道가 이지러지자, 詩人이 衽席(잠자리)의 일에 근본을 두어 <關雎>시가 지어졌다.”<sup>9)</sup> 고 한 바가 있는데, 이는 후에 王充 《論衡》이나 張超의 <靑衣賦>에서 周나라 道가 쇠하던 康王 때에 《詩經》이 지어졌다고 보는 관점<sup>10)</sup>과 맥락을 같이 한다.<sup>11)</sup> 이 관점에서는, 어떤 이가 이 시를 노래 부른다면, 이는 임금이나 통치자가 잠자리의 道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해이함을

7) 《毛詩鄭箋》에서 <關雎>편을 설명할 때는 ‘后妃’나 ‘君子’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으나, 《毛詩正義》에서 孔穎達이 <關雎>편을 文王時代의 작품으로 본 鄭玄의 <詩譜序>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太姒’나 ‘文王’으로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으며, 朱熹의 《詩集傳》에서도 이를 따랐다.

8) 학자에 따라서는 <關雎>편에 대한 三家詩의 관점(刺詩)을 毛詩의 美詩와 대조되는 관점으로 동등하게 비교하기도 하나(이병찬, <《詩經·關雎》章에 대한 韓·中의 見解 比較考察>, 《漢文學論集》 17, 근역한문학회, 1999, 192~194쪽), 본고에서는 三家詩의 관점이 <關雎>편의 作詩之義가 아니라는 陳子展(《詩三百解題》,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1, 7쪽) 등의 입장을 따른다.

9) 司馬遷, 《史記·十二諸侯年表》: “周道缺, 詩人本之衽席, <關雎>作.”

10) 관련 서술은 向熹, 《詩經詞典(修訂本)》(成都: 四川人民出版社), 205쪽 참조.

11) 이상에서 정리한 <關雎>편에 대한 해석관점은 기존 연구에서 개발된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더 다양하게 나눌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關雎>편을 통해 학습자가 해석적 입장의 다양성을 체험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가장 전형적인 것을 예를 들어 소개하고자 한다.

비판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즉, 中庸의 德을 지켰던 后妃와 君자의 이야기를 노래로 불러 그렇지 못한 이를 각성케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석 구도는 <關雎>편이 중국 특정 시대의 문화 배경 속에서, 특히 담화의 배경 속에서 활용될 때의 독특한 의미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위의 두 가지 해석 관점은 과거 상기 해석이 발생한 사회 배경 속에서 이해할 때 그 문화적 해석 의미가 납득될 수 있는 관점에 해당한다. 《詩經》 텍스트를 이해할 때, 학습자가 모든 詩篇의 異說들을 일별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학습 효율면에 있어서도 불필요하나, 문화적 배경과 상징성이 강한 전형적이거나 대표적인 해석 관점을 제시하면서, 그 관점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고민하는 학습은, 경전으로서의 《詩經》 텍스트를 이해하거나 기타 경전과 주석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한 도움이 될 수 있다.

## 2.2 현대 해석의 이해와 접근 읽기

과거의 해석자들이 더한 해석의 무게에 의해 <關雎>편의 상징성과 대표성이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해석자들은 <關雎>편의 언어와 형식에 담긴 '전통'에 자신의 해석 '지평'을 융합시키면서 그 문화적 상징성에 생명력을 더해간다. 즉, 현대의 새로운 해석 관점은 과거의 해석과 유리될 수는 없으며, 여전히 과거의 문헌을 통해 해석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구축하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關雎>편에 대한 현대 해석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관점은 (귀족)남성이 사랑하는 여성에게 구애하는 戀歌로 보는 것이다.<sup>12)</sup> <關雎>편을 周나라 어느 마을에서 初婚을 노래한 民間歌謠로 보는 관점은 清末에 이미 등장하였지만<sup>13)</sup>, 현대에 이르러서야 집중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이 관점은 《詩經》

12) 程俊英·蔣見元, 《詩經注析》(北京: 中華書局, 1996), 2쪽 참조.

편찬과 관련한 採詩<sup>14)</sup> 활동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조탁하지 않은 자연스런 감성의 발로에서 창작된 문학 작품의 작품성을 높이 평가하는 근현대 문학 비평의 흐름에서 볼 때, 儒家적 문화 배경에서 형성된 <關雎>의 해석구도 보다는 民間歌謠의 관점이 훨씬 받아들이기 쉬운 면도 존재한다. 새로운 구도로 詩篇을 해석할 때에는 詩篇 내부가 원만한 의미 맥락을 위한 해석의 재조정 과정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가령 <關雎>편을 戀愛詩로 파악하는 해석 가운데도 시적 화자인 '남성'을 평민으로 설정하는지 아니면 귀족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귀족계급의 禮樂활동에 사용되던 鍾鼓나 琴瑟이 포함된 '鍾鼓樂之'·'琴瑟友之'句에 대한 해석이 假想 상황과 실제 상황으로 각각 나뉘는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주제설정에 따른 내부의미 맥락의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의 해석은 현대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한 <關雎>편 읽기를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는 民俗學과 心理學을 적용하는 해석에서 특히 활발하며 해석 과정에서 詩篇의 어휘·이미지들이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상징의미를 부여받는다. 民俗學의 각도에서 《詩經》을 해석한 마르셀 그라네(Marcel Granet)는, 清代 劉壽增의 <昏禮重別論對駁義>에 의거하여 <關雎>편이 結婚 후 3개월간의 성교금지 기간을 마친 후 행하는 奠菜儀式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였다.<sup>15)</sup> 또한 文化人類學의 문화해석코드를 결합시켜, 새(雉鳩)는 남성의 생식기관을 상징하고, 荇菜[도꼬마리]는 여성의 생식기관을 상징하는 것으로, 모두 '君子'가 '淑女'를 구하는 상황을 상징하는 데 원용되었다고 보는 관점이나, '鍾鼓樂之'·'琴瑟友之'句에 대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빌어 잠재된 욕구·의식이 꿈을 통해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해석 관점<sup>16)</sup>들은 <關

13) 方玉潤 撰, 李先耕 點校, 《詩經原始(上)》(北京: 中華書局, 2006), 71쪽: “竊謂風者, 蓋採自民間者也. 若君妃則以頌體爲宜. 此詩蓋周邑之詠初婚者. 故以爲房中樂, 用之鄉人, 用之邦國而無不宜焉.”

14) 採詩說은 《漢書·食貨志》의 “초봄에 큰 방울을 흔들며 길을 다니면서 민간의 가요를 채집해 음악을 담당하는 太師에게 바치면 太師가 이를 정리해 天子에게 알린다.”는 기록 등에 의거한 관점으로, 후에 民間歌謠說의 주요 논거가 된다.

15) 마르셀 그라네 지음, 신하령·김태완 옮김, 《중국의 고대 축제와 가요》(서울: 살림, 2005), 145쪽 참조.



雎>편을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한 시도에 해당한다.

현대적 해석 관점을 이해하는 과정은, <關雎>편의 해석이 과거와는 또 다른 성격에서 다양화되어 있음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詩經》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현대의 문학비평론 및 연구방법론을 적용함과 동시에 과거의 文獻이나 文物에 의거해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詩篇 내부의 文脈내에서까지 자연스러운 해석맥락을 형성할 수 있을 때, 보다 광범위한 독자에게 수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關雎>편의 고대 및 현대 해석의 이해와 접근을 파악하는 과정은, 《詩經》 詩篇에 대한 과거에 투영된 문화 의미와 현대에 투영한 문화 의미가 중첩되면서 다층의 해석 구조를 지닐 수 있음을 이해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儒家經典 체계 속의 <關雎>, 先秦 談話 속의 <關雎>, 純粹文學으로서의 <關雎>, 문화학과 심리학적 해석구도가 투영된 <關雎> 등 다면체의 <關雎>를 체험할 수 있으며, '하나의 이해'가 아닌 '다중해석이 가능한 이해'로의 '열린 이해'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 3. 시적 표현의 감성체현

詩歌文學集으로서의 《詩經》은 중국 전통 시가문학의 창작과 비평분야에서 줄곧 최고의 전범으로 인식되어왔으며, 그에 대한 문예미학적 분석은 근현대에 이르러 보다 전문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오늘날 많은 독자들이 《詩經》을 독해하는 주요 목적이 바로 시적 표현미를 감상하는 그 미적 효과를 체험하는 데 있음은 부언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부언하고 싶은 점은, 《詩經》이 지닌 시적 표현미는 公的 영역에서의 가치를 아울러 지

16) 상기 관점에 대해서는 趙淸松, <<詩經·關雎>篇夢의解析>(《河北北方學院學報(社會科學版)》 河北: 河北北方學院, 2014) 참조.

닌다는 점이다. 이는 미적 향유 내지 문예비평에 익숙한 우리의 관점과는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는 문학 기능에 해당한다. 본장에서는 《詩經》에 담긴 시적 표현을 통한 공적 감성 체험의 양상과 그와 관련된 시의 문예비평 양상에 대한 접근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詩經》에 반영된 公의 感性이나 상징 이미지를 학습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詩題, 主題·創作背景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詩篇 全文을 순차적으로 읽는 방식도 있겠으나, 학습방식의 변화를 통해 학습자의 흥미를 제고하기 위해, 전형적인 어휘·이미지·句式 등을 먼저 자유롭게 논의한 후 詩題, 主題·創作背景으로 논의를 확장할 수 있다. 전형적인 어휘·이미지·句式 등을 먼저 접하게 함으로써 학습도입부의 부담감을 줄이면서 학습자의 흥미도를 높일 수 있으며 《詩經》과 기타 문학에 반영된 전형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과 아울러 그와 관련된 자연스러운 정서적 반응을 유도해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3.1 公의 感性에 대한 체험

문학작품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情感的 正義에 대해 논의한 마사 누스바움의 《詩<sup>17)</sup>的 正義(poetic justice)》<sup>18)</sup>는, 문학이 현대 사회의 公的 倫理感情과 道德情神을 환기시키는 데 중요한 장르임을 제시한다. 그리고 바람직한 사회 질서의 실현이 理性에만 의지할 수는 없으며 弱者의 고통을 슬퍼하고 부정한 행위에 대해 분노하는 公的인 感性의 역량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고대 희랍 시기의 敘事詩와 悲劇作品이 그러하듯, 문학읽기<sup>19)</sup>가 시민으로서 필요한 도덕

17) 아리스토텔레스의 'poetics'가 예술창작론 전반을 가리키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서양의 'poetics'의 개념은 동양의 詩의 개념과 동일하지 않으며, 마사 누스바움의 논의도 서양 poetic의 범주의 '敘事詩'·'悲劇' 장르에서 이어지는 소설 문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18) 마사 누스바움 지음, 박용준 옮김, 《시적 정의-문학적 상상력과 공적인 삶》, 서울: 궁리, 2013.

19) 마사 누스바움의 실제 논의는 '소설읽기'를 중심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윌트 휘트먼이 '공적인 시(public poetry)'의 필요성을 제기한 점에 주목하고(위의 책, 11쪽), '문학적 상상력'을 부제로 하여 문학 범주 전반의 적용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점 등에 의거하여 '문학

적 역량을 발달시킨다는 관점은, 先秦時代 배경에서의 《詩經》의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는 데에도 참고될 수 있다.

古代에서 문학은 문학비평의 범주보다는 도덕 범주로 인식된다. 《詩經》 텍스트의 내용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은 사회적 전통과 관례, 도덕적 감정을 체험하도록 권장된다. 先秦시대 《詩經》은 음악 연주나 가무요소가 더해지면서 그러한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해내었다고 할 수 있지만 後代의 《詩經》은 이러한 효과적 요소들이 배제됨으로써 주로 텍스트의 내용에 의존해 상기 역할을 수행했다. 공자는 《論語》에서 《詩經》이 감성적으로 감발되고 교육적으로 환기시킬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으며,<sup>20)</sup> 《禮記》에서도 孔子의 이름을 빌려 ‘溫柔敦厚의 《詩》教觀<sup>21)</sup>을 제시한 바 있다. 孔子가 제기한 이래 《詩經》의 사회도덕적인 감성에 대한 작용은 중국 중세 사회에서 더욱 강조되었으며 우리나라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쳤다.<sup>22)</sup>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詩經》 詩篇의 주제나 내용들은 三綱五倫의 道德綱目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詩篇을 구성하는 어휘나 어구들도 사회의 도덕적 의미를 전달하는 상징성과 대표성을 지니게 되었다. 특히 成語로 정착된 어휘들이 의미의 전형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가령, <關雎>편의 ‘窈窕淑女’가 가리키는 ‘깊고 그윽한 閨房에 거처하는善良 여인’<sup>23)</sup>은 오늘날에도 ‘말과 행동이 품위가 있으며 안전하고 정숙한 여자’<sup>24)</sup>,

임기로 개괄하여 서술하였다.

- 20) 《論語·泰伯》：“興於《詩》，立於禮，成於樂。”；《論語·陽貨》：“子曰：‘小子何莫學夫《詩》！《詩》可以興，可以觀，可以群，可以怨。邇之事父，遠之事君，多識於鳥獸草木之名。’”
- 21) 《禮記·經解》：“孔子曰：‘入其國，其教可知也。其爲人也，溫柔敦厚，《詩》教也。疏通知遠，《書》教也。廣博易良，《樂》教也。絜靜精微，《易》教也。恭儉莊敬，《禮》教也。屬辭比事，《春秋》教也。’”
- 22) 이와 관련된 논의는 즐고, <朝鮮時代 《詩經》 인식에서의 詩可以怨과 溫柔敦厚> (《韓國漢文學研究》 52, 서울: 한국한문학회, 2013), 379~429쪽 참조.
- 23) 毛公序(《毛詩鄭箋》，1쪽)에서는 ‘窈窕，幽閒也。淑，善。’(“窈窕는 그윽하고 한가하다는 뜻이며，淑은 좋하다는 의미이다.”)라고 하였고，孔穎達의 《毛詩正義》에서는 ‘窈窕’에 대해 <毛詩序>의 관점을 보충하여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淑女已爲善稱，則窈窕宜爲居處。揚雄云：‘善心爲窈，善容爲窕者，非也。’”(“淑女가 이미 선함을 가리킨다면，窈窕는 마땅히 거처함이 된다. 揚雄이 ‘善한 마음을窈라 하고 善한 용모를窕라 한다.’ 풀이한 것은 그르다.”) 본래는 ‘그윽한 규방’을 형용한 ‘窈窕’가 후대에 그러한 곳에 거처하는 단아하고

즉 내면의 德을 갖춘 여인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이 어휘가 지닌 전통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女人像으로서의 강한 의미작용의 생명력을 유추할 수 있다. '琴瑟友之'의 '琴瑟' 또한 조화로운 화음을 이루는 琴과 瑟의 협연을 통해 男女·夫婦間의 바람직한 관계상을 상징함으로써 夫婦間의 德目을 자연스럽게 교육하는 효과를 지닌다. 우리말의 '(부부간에) 금실이 좋다'라는 표현 또한 이 어휘의 영향력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다.

고대의 《詩經》 교육이 주로 정치적 교화라는 목적에 부응하는 것이었다면, 그 목적의 이면에는 단순히 봉건 지배 계층의 '정치를 위한 정치' 요소 외에 사회구성원의 건강한 도덕성을 배양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정서의 배양 기능을 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며, 이 점은 오늘날 《詩經》 읽기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3.2 이미지와 패턴의 감성체험

앞 小節에서 公의 感性的 체험이라는 각도에서 《詩經》의 언어·이미지를 언급했다면, 본 小節에서는 文化的으로 기호화된 《詩經》의 언어·이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전자의 경우도 물론 문화 기호화의 범주에 속하지만, 본고에서는 서술의 편의를 위해 도덕적 요소를 포함한 경우와 심미적 표현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를 구분하고자 한다.

특정 어휘·이미지나 구절 패턴은 《詩經》 텍스트 내부에서의 일정한 의미를 담아 관용화되어 다른 詩篇·다른 문학 장르에서 運用된다. 학습자가 이를 유형화시켜 이해한다면 《詩經》의 기호화의 영향성을 체험하는 데 유효할 것으로 사료된다. 《詩經》의 어휘·이미지·구절 등이 후대 문학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므로 관련 용례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정숙한 여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2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의 뜻풀이 인용.

曹丕·李白·杜甫 등 中國古典文學에서의 《詩經》의 援用 양상을 다룬 연구<sup>25)</sup>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古典詩歌나 小說에 援用된 《詩經》 양상을 분석한 연구들<sup>26)</sup>이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다.

《詩經》의 특정 어휘·이미지·구절 패턴 학습 시 관련 유형이 援用된 문학작품을 참고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첫째는 학습자의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援用하는 文獻의 난이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가령 대학 과정의 한국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既學習한 古典詩歌나 한국어로 창작되었거나 번역된 문학작품을 선택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둘째, 기타 작품에 援用된 《詩經》 어휘·이미지·구절 패턴을 選擇할 때 가능한 한 《詩經》에서의 原義에 가까운 援用의 예를 먼저 제시한다.

가령 《邶風·凱風》편 제4장<sup>27)</sup>을 학습할 경우, 아름답게 노래 부르는 黃鳥의 화애로운 이미지 및 前2句와 後2句의 표현 방식 등이 주요 학습 내용이 될 수 있을 듯한데, 이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국어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黃鳥歌><sup>28)</sup>와 연관시켜 학습할 수 있다. <凱風>편 前2句에 묘사된 아름다운 黃鳥의 노랫소리는 ‘화애로움’을 나타내며, 後2句에 서술된 일곱 자식은 黃鳥와 같지 않아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 없음을 나타내어, 黃鳥의 상황과 일곱 자식의 상황이 서로 대비를 이룬다. <黃鳥歌>의 표현 방식도 <凱風>편 제4장과 유사한 구조를 이룬다. 짝을 이룬 黃鳥의 모습과 짝을 떠나보낸 詩的 話者의 모습이 대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비교 학습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특정 사물의 이미지가 서로 다른 詩 속에서 일정한 상징 의미를 지닐

25) 梁平, <論曹丕詩與《詩經》之淵源>(《樂山師範學院學報》 22-6, 四川: 樂山師範學院, 2007, 36~39쪽), 何慎怡, <杜詩引《詩》考>(《古漢語研究》 68, 湖南: 湖南師範大學, 2005, 81~86쪽), 方新蓉, <李白對《詩經》的接受>(《西華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四川: 西華師範大學, 2009, 29~33쪽) 등 참조.

26) 안병혁, <國文學에 끼친 詩經의 影響>(《國語國文學》 5, 부산: 문창어문학회, 1975, 36~55쪽); 黃妍, <朝鮮上古詩歌對《詩經》的接受及其影響-以<公無渡河>、<黃鳥歌>、<龜旨歌>爲例>(延邊: 延邊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王哲, <朝鮮漢詩集<箕雅>中的<詩經>典故研究>(湖南: 中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등 참조.

27) 《邶風·凱風》: “睨睨黃鳥, 載好其音. 有子七人, 莫慰母心.”

28) <黃鳥歌>: “翩翩黃鳥, 雌雄相依, 念我之獨, 誰其與歸.”

수 있으며, 구절의 표현 방식도 일정한 유사성을 지닐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관심과 학습 수준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比興의 표현 기법에 대해 학습 내용을 제시할 수도 있다.

한편 《詩經》과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다른 장르에서 사용된 《詩經》의 표현 내용·방식과 유사한 문학 표현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문학 표현의 보편성의 각도에서 《詩經》 표현을 이해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이는 《詩經》의 표현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동양과 서양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것임을 환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로 《齊風·鷄鳴》편을 하나 들어보도록 한다.

“닭이 벌써 우네요, 조정에 신하들이 가득 모였겠어요.” “닭이 온 게 아니라, 쉬파리 소리라오.”

“동녘이 밝았네요, 조정에 신하들이 가득 모였겠어요.” “동녘이 밝은 게 아니라, 달이 떠오른 빛이라오.”

“날베레들 뽁뽁 날아다닐 때, 달콤하게 한잠 더 자고 싶소.” “모였다 돌아갈 시간이예요, 혹 나 때문에 넘까지 미워하지 않을런지.”<sup>29)</sup>

초3章, 章4句로 이루어진 <鷄鳴>편의 앞 2章은 章마다 2句씩 여성 화자와 남성 화자의 대화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第2句의 ‘朝’자를 ‘조정’·‘조회’로 파악할 경우, 男女 話者는 諸侯와 같은 통치 계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아침’으로 파악할 경우, 평민 부부나 연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대에는 이 두 해석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후자를 따를 경우, 연인의 사랑하는

29) 《齊風·鷄鳴》: 제①장: “鷄既鳴矣, 朝既盈矣. 匪鷄則鳴, 蒼蠅之聲.”; 제②장: “東方明矣, 朝既昌矣. 匪東方則明, 月出之光.”; 제③장: “蟲飛薨薨, 甘與子同夢. 會且歸矣, 無庶子憎!” 이 시의 시적 화자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 孔穎達은 ①·②章 부인(前2句), 詩人(後2句): ③章부인(全4句)으로, 方玉潤은 ①·②章 부인(前2句), 남편(後2句), ③章 부인(全4句)으로, 程俊英은 ①·②章 부인(前2句), 남편(後2句): ③章 남편(前2句), 부인(後2句)으로 파악한다. 韓宏韜, <論《齊風·鷄鳴》從理性到情致的審美取向> (《臨沂師範學院學報》 29-4, 山東: 臨沂大學, 2007, 121~123쪽)에서는 이 시의 시적 화자에 대한 역대 주요 관점이 理性 추구적 성향에서 情趣 추구적 성향으로 演變되었다고 파악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 詩가 지닌 문답방식으로서의 극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程俊英의 해석에 의거해 번역하였다.

연인이 밤을 같이 보내고 헤어져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을 때의 대화 모습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양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대화 장면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동이 뜨기 전에 헤어져야 하는 장면에도 등장한다. 개략적인 대화의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줄리엣: 벌써 가시려구요? 동이 트려면 아직 멀었어요. 당신이 두려워하는 컷볼을 간질이는 저 소리는 종달새가 아니라 나이팅게일이예요.

로미오: 저 소리는 나이팅게일이 아니라 아침을 알리는 종달새라요. 東方에 구름 사이로 曙光이 비쳐오고 있잖소.

줄리엣: 저 빛은 새벽빛이 아니라 流星이예요.....<sup>30)</sup>

이 장면을 중국어로 옮긴 錢鍾書의 번역을 살펴보면, 《齊風·鷄鳴》편과의 유사성을 더욱 잘 체감할 수 있다.<sup>31)</sup> 이렇듯 《詩經》 내부나 《詩經》과 직접적인 영향관계의 援用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사한 상황설정, 내용표현이 담긴 다른 문학, 영화, 음악 장르 등을 참고함으로써 학습자가 《詩經》 내용에 다가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교수자가 직접 관련 문학 작품을 제시하는 방법 외에, 학습자가 스스로 찾아 제시하는 방법을 유도할 경우 감상과 토론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sup>32)</sup>

30) William Shakespeare, *Romeo and Juliet*, Act 3, Scene 5, 원문과 현대영역은 Crowther, John, ed. "No Fear Romeo and Juliet." SparkNotes LLC. 2005. <http://nfs.sparknotes.com/romeojuliet/> 자료를 참조함.

31) 錢鍾書, 《管錘編(一)·毛詩正義(60則)·三五鷄鳴》(北京: 三聯書店, 2001/2008, 189쪽): “莎士比亞劇中寫情人歡會, 女曰: ‘天尚未明, 此夜鶯啼, 非雲雀鳴也.’ 男曰: ‘雲雀報曙, 東方雲開透日矣.’ 女曰: ‘此非晨光, 乃流星耳.’ 可以比勘.”

32) 가령 <鷄鳴>편의 표현 방식과 유사한 작품부분 등을 찾아 토론을 확장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단편소설집 《물거울》에 수록된 <그 시절 사람>(로제 그르니에, 김화영 옮김, 문학동네, 2001, 122쪽)에 수록된 대화내용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사실 저건 어찌면 당신네 버스가 아닐지도 몰라. 아마 지나가는 트럭이 내는 소리일 거야.” 그러나 그 경적 소리는 그녀의 귀에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빈정거렸다. ‘그대 떠나려는가? 아직 날이 밝지 않았는데, 그것은 종달새 소리가 아니라 나이팅게일 소리였는데…….’”

## 4. 원전과 번역 사이의 공간인식

古典詩歌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작업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져 온 까닭에 번역량이 상당하며 숙련된 번역 전문가라면 자신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中國의 古典詩歌 가운데 우리말로 가장 많이 번역된 텍스트를 꼽으라하면 《詩經》을 들 수 있을 것이다. 《詩經》의 經典的 성격으로 인해, 校正廳에서 번역·간행한 諺解本의 우리말 번역은 후대 학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언급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詩經》을 주요 텍스트로 한 번역 학습은 상당한 양의 신빙성있는 참고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외국어인 《詩經》의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은 우리말로의 변환 과정이 포함되게 마련이다. 학습자의 원천 텍스트에 대한 우리말 번역 학습은 원전의 이해 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도 유효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詩經》을 번역할 때는 현미경에 얹어 놓은 조직세포를 쪼개듯이 언어 하나하나를 세밀히 전환하는 번역 방식도 있고 전체적인 느낌을 우리말 시의 언어로 전환하는 방식도 있다. 본장에서는 《詩經》에 관련한 풍부한 우리말 번역 자료들을 참고하여 학습자가 원천 텍스트의 언어를 번역 언어로 전환하는 과정을 학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4.1 逐字譯으로서의 번역

유가경전의 하나인 《詩經》텍스트는 그 권위와 과거시험 등의 필요성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번역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詩經》의 언어가 우리말로 변환되는 과정에는 해석 관점, 즉 주제나 어휘 의미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번역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詩句의 어법구조에 대



한 이해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상기 조항에 대한 입장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文脈에 대한 입장 차이나 우리말과 古代漢語의 언어 구조의 차이에 의해 번역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본 節에서는 특히 후자의 상황에 따른 《詩經》의 우리말 변환에 대한 이해를 통해 《詩經》 언어에서 우리말 언어 사이의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詩經》의 원천 언어에 충실한 逐字譯의 방식은 조선시대 유가 경전 해석의 기본 방식이므로, 학습자가 《詩經》 언어를 逐字譯하는 과정에서 때로 校正廳 諺解本이나 조선 중기 우리말 《詩經》 번역에 대해 분석한 李滉의 《詩釋義》 등의 諺解·諺釋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直譯·逐字譯의 과정에서 원천 언어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말로 옮겨야 하는 대표적인 부분은 바로 시제와 어말어미·조사의 처리라 할 수 있다.

가령 婚期가 차오르는 여인을 노래한 《召南·標有梅》편에서는,<sup>33)</sup> 떨어지는 매화 열매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을 통해 여인의 婚期가 임박해 옴을 점증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매 章의 첫 구에 해당하는 ‘標有梅’에 대해, 현대 번역서에서는 주로 “떨어지는 매화 열매”<sup>34)</sup>, “던지는 매화 열매”<sup>35)</sup>, “매실을 따니”<sup>36)</sup> 등으로 동일한 번역어로 반복 번역되는 경향을 보인다.<sup>37)</sup> 한편 李滉의 《詩釋義》의 경우, 제1장과 제2장은 현재진행형[‘標有’]으로 석의하고 제3장은 과거 발생형[‘標有’]으로 석의하여 詩篇 전개상의 변화를 우리말 번역 언어 안에 반영하고자 하였다.<sup>38)</sup> 李滉은 또한 ‘標하고 있는 매실이어’라고 번역한 경우는 잘못되었다고 제시한 바 있는데,<sup>39)</sup> 이는 ‘標有梅’의 ‘有’자가 實辭가 아닌 구조

33) 《召南·標有梅》: 제①장: “標有梅, 其實七分. 求我庶士, 迨其吉兮.”; 제②장: “標有梅, 其實三分. 求我庶士, 迨其今兮.”; 제③장: “標有梅, 頃筐塹之. 求我庶士, 迨其謂之.”  
 34) 신석초 옮김, 《新譯 詩經》(서울: 서문당, 1975/1981), 52쪽.  
 35) 윤영춘 역해, 《詩經》(서울: 한국서적공사, 1983), 59쪽.  
 36) 김학주 역지, 《新完譯 詩經》(서울: 명문당, 1977), 60쪽. 제3장 첫구절에 대해서는 “매실을 따”로 번역하였다.  
 37) 여기에서 ‘標’를 ‘떨어지다’(《毛傳》)로 파악하거나 ‘던지다’(聞一多)로 파악하는 등 어휘 해석의 입장 차이는 일단 논외로 한다.  
 38) 李滉, 《詩釋義·召南·標有梅》 ‘標有梅條: “標有. 下章標有, 此說是.” 이 논의는 좋고, <退溪의 《詩經》 釋義 고찰에 대한 번역학적 탐색 >(《한국한문학회연구》 55, 서울: 한국한문학회, 2014) 참조.

조사의 성격을 지니므로 ‘있다’라는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은 올바른 逐字譯·直譯이 아님을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바로 선조들이 漢詩를 우리말 언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고민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오늘날 우리가 《詩經》을 번역어로 옮기는 학습 과정에서 번역의 접근 각도를 고려할 때 유용한 자료로 참고될 수 있다.

《詩經》언어를 直譯하는 학습 과정을 통해, 어휘나 시체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 다른 의미 번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번역이라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때, 《召南·標有梅》와 같이 다양한 해석 관점이 선명하게 구분될 수 있고, 기존 번역자가 이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는 詩篇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교수가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상황에서, 학습자에게 기본 어휘의 의미를 제시하고 직역하게 한 뒤, 개별 학습자간의 직역이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直譯의 언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4.2 재창작으로서의 번역시

《詩經》언어의 우리말 번역은 直譯·逐字譯을 통해 구현될 수 있지만, 《詩經》의 表現美感을 원용하여 우리말의 시적 미감을 살려 새롭게 재창작될 수도 있다. 특히 언어가 고도로 정련된 詩文學의 경우, 원천 언어의 의미를 번역어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는 번역의 예술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함축성과 상징성의 요소는 번역의 어려움을 가중화한다. 그러한 까닭에 <關雎>편에 담긴 풍부한 文學性的의 경우 다른 《詩經》詩篇들에 비해 번역어로 재현해 내기 더욱 어렵다는 논의도 제기되기도 한다.<sup>40)</sup> 이러한 경우, 번역자는 直譯

39) 李滉, 《詩釋義·召南·標有梅》, ‘標有梅條: “或標有 고인는 梅여者, 非也.”

40) 高玉, <論古代漢語的“詩性”與中國古代文學的“文學性”—以<關雎>“今譯”爲例>(《湖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3-1, 湖北: 湖北大學, 2006) 참조.

의 방식 대신 번역어 자체로서 미적 감상효과를 지닐 수 있는, 재창작의 성격을 지닌 번역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번역들은 《詩經》 학습자가 우리말의 시적 언어로 《詩經》을 감상하는 데 참고될 수 있다.

가령 우리말의 미감을 한껏 살려 《詩經》의 일부 작품을 번역한 김억은 《詩經》의 詩言語가 우리말의 詩言語로 재창작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김억은 《周南·關雎》편 제1장에 대해, “가유가유 물새는 짝지어 돌고, 내라네라 깃섬서 노래를 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짝을 찾아서, 아름다운 사람과 즐기는 것을.”이라고 번역하였다.<sup>41)</sup> 김억의 번역은 운율효과와 함께 그 자체로 독립적인 한 편의 詩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詩의 내용과 모티브, 구성은 <關雎>편에서 가져왔지만, 어휘와 구절의 의미는 원천 텍스트의 언어와 전혀 등가를 이루지 않은 형태에 해당한다. 학습자가 재창작된 《詩經》 번역을 접할 경우, 원천 언어에 대한 축적적인 이해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우리말의 미감을 통해 《詩經》 언어의 미감을 유추할 수 있는 학습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는 한문의 정확한 이해와 해석의 범주보다는 감상과 재창작의 범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詩人の 감각에 의해 재창작된 《詩經》 번역을 감상하는 학습 방식 외에도, 《詩經》 詩篇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창작으로서의 번역이라는 문제에 대해 체험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즉, 詩篇의 내용과 주제에 대해 이해·감상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감상 내용을 현대어로 재창작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중국의 고등학교 어문교과서 제3책에 수록된 《邶風·靜女》편에 대한 교수학습활동 가운데, 학생들을 네 개 조로 나누어 작품에 근거한 재창작 활동을 한 결과, 현대시 풍격의 <靜女>, 古典詩 풍격의 <靜女>, 유머 풍격의 <靜女>, 인터넷 댓글 풍격의 <靜女> 등 다양한 작품 창작활동이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의 《邶風·靜女》편의 이해도와 함께 흥미도와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었음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sup>42)</sup> 이러한 연구들을 참고하여, 우리말로 번역과

41) 관련 연구는 신두환, <김억의 《詩經》 번역에 대한 일고찰>(《한국언어문화》 24, 서울: 한국언어문화학회, 2003), 29~52쪽 참조.

42) 馬建梅, <詩歌教學還可這樣一趣談《詩經·靜女》>(《寧夏教育》, 寧夏: 寧夏回族自治區教

정에서 時調風, 現代詩風의 詩體나 小說·散文體 등의 다양한 장르를 다각도로 적용하여 재창작 학습을 하는 시도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 5. 결론

이상에서 우리나라 학습자가 《詩經》을 학습할 때 학습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詩經》 학습 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접근 각도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하였다. 접근 가능한 각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크게 ‘《詩》無達詁의 주제읽기’, ‘시적 표현의 감성체험’, ‘원전과 번역 사이의 공간인식’ 세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詩》無達詁의 주제읽기’ 접근에서는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해석 관점들에 대해, 해석이 발생한 문화적 배경과 해석자의 인식에 근거해 이해함으로써 학습자가 보다 열린 관점에서 해석을 접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학습방안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시적 표현의 감성체험’에 대한 접근에서는 어휘나 이미지·구절 등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詩經》이 과거 전통 사회에서 작용한 公的 感性으로서의 역할이 어휘화 또는 이미지화되어 현대 문화 속에 전승되는 과정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원전과 번역 사이의 공간인식’에 대한 접근에서는 《詩經》 詩篇의 언어를 우리말로 直譯하거나 재창작하는 학습 과정을 적용할 경우, 학습자가 번역 과정 속에 반영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作品에 대한 흥미도와 미적 감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詩經》을 독해하는 과정에서 마주쳤던 의문점에 대한 단상을 교육적 접근이라는 각도에서 정리한 것으로, 실제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적용

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다만 《詩經》 詩篇을 기본 학습 단위로 하여 주제·중심 내용·어휘·구절 의미를 순서대로 학습하는 방식 외에, 《詩經》 학습 방법을 다각화함으로써 학습자가 《詩經》의 풍부한 텍스트적·문화적 요소를 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여전히 연구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한 까닭에 본 연구에서의 가능성 모색이 《詩經》 교육의 현대적 학습을 다양화하고 효율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 參考文獻 >

- 高玉, <論古代漢語的“詩性”與中國古代文學的“文學性”—以<關雎>“今譯”爲例>, 《湖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3-1, 湖北: 湖北大學, 2006.
- 고정희, 《고전시가교육의 탐구》, 서울: 소명출판, 2013.
- 김수경, <朝鮮時代 《詩經》 인식에서의 詩可以怨과 溫柔敦厚>, 《韓國漢文學研究》 52, 서울: 한국한문학회, 2013.
- 김수경, <退溪의 《詩經》 釋義 고찰에 대한 번역학적 탐색>, 《韓國漢文學研究》 55, 서울: 한국한문학회, 2014.
- 김학주 역저, 《新完譯 詩經》, 서울: 명문당, 1977.
- 董洪利, 《孟子研究》,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7.
- 류성준, <중국 고전시가의 향후 연구모색과 그 교육>, 《외국문학연구》 11,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2.
- 馬建梅, <詩歌教學還可這樣一趣談《詩經·靜女》>, 《寧夏教育》, 寧夏: 寧夏回族自治區教育委員會, 2005.
- 로제 그르니에 지음, 김화영 옮김, 《물거울》, 서울: 문학동네, 2001.
- 마르셀 그라네 지음, 신하령·김태완 옮김, 《중국의 고대 축제와 가요》, 서울: 살림, 2005.
- 마사 누스바움 지음, 박용준 옮김, 《시적 정의-문학적 상상력과 공적인 삶》, 서울: 궁리, 2013.
- 毛公序, 鄭玄箋, 《毛詩鄭箋》, 相臺嶽氏本 校正 影印本, 臺灣: 新興書局, 1979.
- 毛公序, 鄭玄箋, 孔穎達疏, 《毛詩正義》, 十三經註疏標點本,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方新蓉, <李白對《詩經》的接受>, 《西華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四川: 西華師範大學, 2009.

方玉潤撰, 李先耕點校, 《詩經原始(上)》, 北京: 中華書局, 2006.

신두환, <김억의 《詩經》번역에 대한 일고찰>, 《한국언어문화》 24, 서울: 한국언어문화학회, 2003.

신석초 옮김, 《新譯 詩經》, 서울: 서문당, 1975/1981.

안병혁, <國文學에 끼친 詩經의 影響>, 《國語國文學》 5, 부산: 문창어문학회, 1975.

梁平, <論曹丕詩興《詩經》之淵源>, 《樂山師範學院學報》 22-6, 四川: 樂山師範學院, 2007.

王哲, 《朝鮮漢詩集<箕雅>中的<詩經>典故研究》, 湖南: 中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윤영춘 역해, 《詩經》, 서울: 한국서적공사, 1983.

李滉, 《詩釋義》, 한국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일산古1230-14).

이동향, <중국고전시론중의 감상론>, 《중국어문논총》 29,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05.

이병찬, <《詩經·關雎》章에 대한 韓·中의 見解 比較 考察>, 《漢文學論集》 17, 근역한문학회, 1999.

錢鍾書, 《管錘編》, 北京: 三聯書店, 2001/2008.

程俊英·蔣見元, 《詩經注析》, 北京: 中華書局, 1996.

趙青松, <《詩經·關雎》篇夢的解析>, 《河北北方學院學報(社會科學版)》, 河北: 河北北方學院, 2014.

주기평, <한국 대학에서의 중국고전시가 교육방법>, 《中國文學》 72, 한국중국어문학회, 2012.

朱熹, 《詩集傳》, 《朱子全書》第一冊, 朱傑人·嚴佐之·劉永翔主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安徽教育出版社, 2002.

陳子展, 《詩三百解題》,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1.

何慎怡, <杜詩引《詩》考>, 《古漢語研究》 68, 湖南: 湖南師範大學, 2005.

韓宏韜, <論《齊風·鷄鳴》從理性到情致的審美取向>, 《臨沂師範學院學報》 29-4, 山東: 臨沂大學, 2007.

向熹, 《詩經詞典(修訂本)》,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1997.

黃妍, 《朝鮮上古詩歌對《詩經》的接受及其影響-以<公無渡河>、<黃鳥歌>、<龜旨

歌>爲例》, 延邊: 延邊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2014.12.30.접속).

Crowther, John, ed. "No Fear Romeo and Juliet." SparkNotes.com. SparkNotes LLC. 2005. <http://nfs.sparknotes.com/romeojuliet/>(2014.12.30.접속).

### < 中文提要 >

本文以學習《詩經》的韓國學生通過多種學習方法取得多樣的學習效果爲基本假設, 考察了學習《詩經》的有效方法。學習《詩經》的角度可爲多種, 而本文主要就“《詩》無達詁”、“對詩性的體驗”、“原典語言與翻譯語言”三個方面進行考察。首先, 在“《詩》無達詁”方面, 談到從古至今互不相同的詩篇解釋皆有所產生的社會背景與解釋者的思路, 因此通過接觸不同的解釋觀點, 學習者可以理解或接受不同解釋觀點的方式。第二, 在“對詩性的體驗”方面, 論述了《詩經》中的不少詩性在現代文化、語言中成爲文化符號化。以這些文化符號作爲切入點, 學習者可以親近《詩經》的詩性。第三, 在“原典語言與翻譯語言”方面, 論及了學習者翻譯《詩經》的過程即是體驗不同語言之間的空間的過程。而翻譯活動中的“再創作”活動亦可有效激發學生對《詩經》的興趣與理解。

關鍵詞: 《詩經》, 《詩》無達詁, 《詩經》教育, 《詩經》解釋, 《詩經》翻譯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4. 12. 31.	2015. 1. 19.	2015. 2. 2.	2015. 2. 6.	2015. 2. 28.